

을 살리고 도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10여년간 귀농학교를 진행하면서 1500명 정도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500명 정도가 귀농을 하고 생산자로 활동하면서, 생명유기농업을 통해 땅과 농촌을 살리고 도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불교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해 귀농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핵심은 '바른 먹거리 운동'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생명농업을 통해 생산된 생명농산물 도시인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운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과 그것을 소비하는 도시의 소비자들 서로 얼굴과 얼굴을 알고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망생협은 귀농을 꿈꾸고 있는 도시인들과 농촌의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태적인 사회를 위해 함께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불자들 인식 개선 필요

하지만 생명평화와 우리 농업 발전에 대한 불교계의 낮은 인식은 생협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인드라망생협은 불교계 생협 중 가장 일찍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경부터 친환경경양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법당에 올리는 공양미를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쓰자는 운동이었죠. 불교계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소비하고 생협에 대한 사찰과 불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봉은사, 화계사, 길상사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사찰이 인드라망생협과 협약을 맺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사업 초기에는 여러 사찰들이 관심을 갖고 협약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7곳의 사찰만이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다.

이정호 이사에 따르면 불교계 대표적 생협들의 회원수는 이웃 종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웃 종교 생협 중 가장 활성화된 가톨릭의 경우 전국적으로 2만명의 조합원들이 생협의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중이다. 그러나 불교는 인드라망 생협이 1500여 명, 대불청의 연꽃 생협이 340명, 대전불교생협이 520명이다. 세 단체의 조합원 모두 합쳐도 가톨릭 생협 1/10 수준에 그친다.

"조건이 형성돼야 일이 발생하듯 귀농운동이나 생명생태운동을 하려면 몇 가지 구성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귀농은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생협운동은 생산자들이 강력하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만 따지면 가톨릭이 최고입니다. 가톨릭농민회라는 40년 넘은 단체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농민들 제값받기 등 농민을 규합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축적된 역량은 굉장하죠. 이들 농민회는 면단위로 구성돼 생협·유기농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이런 농민회조차도 없어요. 아직까지 사찰은 근대적 가치에 머물러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가격만 저렴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생산이 어디서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친 건지 등 윤리적 소비를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정호 이사는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되려면 각 지방마다 위치하고 있는 사찰들이 농촌과 연계해 불교 사회적 역할을 높이면 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생협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스님과 불자들의 생협과 조합원 제도에 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동이라는 것은 생태적 기술입니다. 남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양보, 배려 할 줄 아는 것이죠. 경쟁사회에서 경쟁적 인간으로 길러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죠. 그중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시중 가격보다 다소 높아도 불교 생협의 가치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 생협은 현재 씨앗을 틔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증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농업과 농촌은 아주 위험



이정호 상무이사는 ... 인드라망 생협 상무이사를 맡으며, 현재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정책위원장(준)의 소임과 불교생협연합회(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동안 불교계의 활동으로는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 집행위원' '지리산살리기범불교연대 정책실장'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한국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기획위원'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천성산살리기시민환경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유기농업운동'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조직이 생활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자들이 생협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에 흩어진 불자 귀농자를 모아 협동조합 운동 활성화를 발원했다.

"불교계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이 대중화돼야 귀농하신 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귀농자들 대부분이 개인적 인연에 따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데 모아야 하는데, 이때 인드라망 생협이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찰과 지역 신도들을 연결해 지역 곳곳에 생협 매장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다 많은 불자들이 생협에 관심을 갖고 조합원에 등록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부지런히 살기 위해 쌀과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발로 뛰는 이정호 상무이사. 그는 도법 스님이 준 범명대로 '새벽동산'처럼 늘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나는 기자 oasis1963@hyunbul.com

전법일기

잘린 손가락을 치유해 주다

2013년 초파일을 한 달 앞두고 우연히 푸안을 만났다.

"스님, 안녕하세요. 센터에 친구 만나러 왔어요."

"반가워! 푸안. 그런데 왼손이 아픈 거야? 붕대를 왜 감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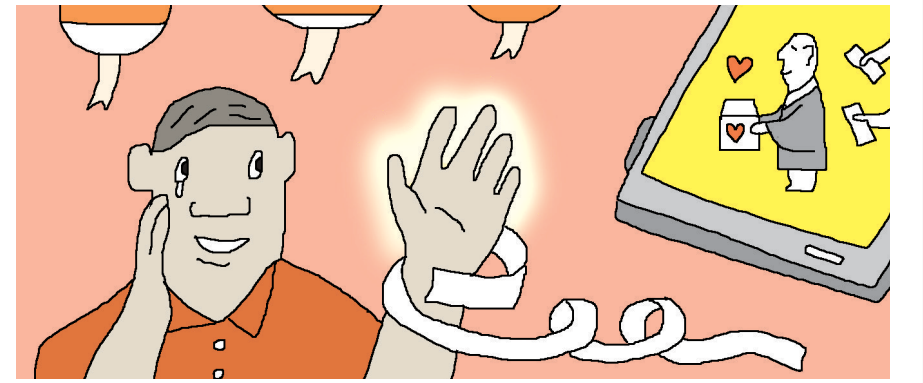
그런데 단순히 붕대를 감은 수준이 아니었다. 새끼손가락을 빼고 모두 프레스기에 잘린 상태였다.

합장을 하게 했더니 사라진 부위가 너무 컸다. 사실은 새끼손가락도 안 남고 손바닥 안쪽까지 잘려나갔던 것이다. 손이 없으니 당연히 그에게 일자리를 줄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 산재보험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았었다. 하지만 한국에 올 때 빚진 것을 갚기 위해 모두 집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그냥 돌아가려고 한다는 글과 함께 150만원의 제작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의수 제작비 마련까지 다시 100km 마라톤을 뛰겠다고 올렸다.

한 달만에 후원금이 마련되었다. 의수 제작소로 동행해 더 나은 재질을 선택했다.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라며 마침내 다친 손을 가리게 된 의수를 낀 푸안의 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나는 이 기쁨을 2013년 초파일 날, 절에 오신 분들께도 전했다.

"부처님은 큰 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등을 올리면 복을 많이 받고, 작은 등을 올리면 죄를 받는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자신 가까이 등을 켜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까. 단지 사



그림·박구원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복지는 커녕 업체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일부터 시키고 보는 일부 업자들의 잘못이 컸다.

다시 만난 푸안은 더욱 의기소침해 있었다. 무료하고 심심한 일이 반복되면서 푸안은 2주 뒤에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의수를 왜 안 했는지 물었다.

"비싸요."

30살 베트남 청년 푸안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150만원이 없어서 저 상태로 고향에 돌아갈 때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푸안은 고향 친구들을 만났을 때 멋지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순간 이견 아니었다.

나는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모금을 기획했다. 몸이 멀쩡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매일 자신의 없어진 손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다.

나는 그의 허락을 받고 잘린 부위의 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국에 와서

람들이 법당 가까이 등을 키면 좋아하고 조금 구석진 곳에 밝히면 뭔가 부족할 거 같은 생각을 할 뿐입니다. 결국 부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 뒤에 있더라도 간절한 발원으로 밝힌 등이 더 오래간다고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설화가 전해집니다. 오늘 작은 돈이라도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을 되새기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행사 발원문을 마치고 대문사 노보살님들께는 따로 감사를 드렸다. 푸안의 의수를 마련하는데 할머니들이 시주하신 1천원, 2천원이 모여서 보탬이 되었다.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푸안에게 의수를 선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곳곳에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진오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구미 대문사 주지)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립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곁 이



정품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98원/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